#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

## (룻기 2:1~23)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

우리 신체에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은 수의근(隨意筋)과 불수의근(不隨意筋)으로 나눠집니다. '수의근'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을 말합니다. 숨을 쉴 때에 허파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한 것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모두 문제없이 기능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도 이처럼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삶이 이루어져갑니다. 즉 삶의 내용은 자발적인 부분과 우연적인 부분으로 채워져 가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피조세계인 이 세상 안에 우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10:29절의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

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인격적으로 의도한 바가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우연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연적 부분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나의 생김새는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김태희 씨나 정우성 씨의 외모나 키도 우연히 주어진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여전히 세계 부자 1위입니다.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또는 빌게이츠와는 너무나 다르게 저처럼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입장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도 우연이고 아들에게 그 아버지도 우연입니다. 나는 왜 미국이나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굳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다 우연입니다. 이렇듯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연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개척하고 극복하고 성취하는 나의 의도가 들어간 부분들로 채워져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생이 행복과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은 자발적인 부분과 우연적인 부분에서의 형통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완벽한 우연과 완벽한 자발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발성'은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오류투성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연은 내 의도나 생각이나 의지나 능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우연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상태가 우연히 완벽할 수 있다면 우연도 변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연도 변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연히 있고 완벽한 우연히 있습니다. 우연 자체를 내가 직접 바꿀 수는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완벽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우연히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자발성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발성의 완벽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연의 완벽함도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신앙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우연도 나의 자발성의 완벽함의 정도에 따라서 완벽한 우연일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다른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낯선 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삶이 진행되는 초장에 미래의 남편감인 베들레헴 사회에서 명망 있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기 밭에 온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또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명망 있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굉장한 부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의 미래의 남편이 되고 그 아들인 오벳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돌출하는 인물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마1: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이방 여자인 룻이 낳게 되는데 오늘 그 남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를 앞장과 대비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잃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룻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데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과 시아주버니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앞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이므로 나오미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남편과 아들들과 재산을 잃었던 것과 대칭되어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남편과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계대결혼의 풍습이 있던 이스라엘에서 룻이 남편과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은, 곧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사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대가 끊긴 자기 집안을 이어갈 사람으로, 룻의 아들인 오벳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로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나오미와 룻이 각각 가졌던 여호와와의 관계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할 때에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물을 잃으면서 진정한 선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고, 룻은 시어머니가 겪는 영적인 과정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남편과 아들과 재물까지도(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선민의 삶에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대표되는 자발성과 우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선민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우연성과 자발성의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우연성과 자발성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고, 완벽과는 다른 우연성과 자발성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 소개됩니다.

먼저 완벽한 우연성과 완벽한 자발성이 나타나는 룻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4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면대면 해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의 핵심적인 단어는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나와야 하는 시점이 꼭 그때여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날 왔다 갔을 수도 있고 뒤에 왔었을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벽한 우연성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완벽한 우연성이 임하시오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139: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구절에서 ‘보배로운 주의 생각’은 앞 16절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날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우연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룻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기 위하여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으로 이미 아담 타락 전에 계획을 해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된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우연이 가장 완벽한 우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 속에서 나를 위한 본래의 계획들이 내게는 완벽한 우연성이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우연성'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발성'이 있으면 주어지게 됩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줍게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것에 의지하여 먹고 살겠다는 자발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발성이 완벽할 때에 내 삶이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에 의존해서 우연성이 완벽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신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뜻에는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주변의 우연성의 부분이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직접 수행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2: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완벽한 우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행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해야 하는데 이것이 완벽한 자발성입니다. 내가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나의 소원이 되면 자발성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우연성도 완벽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완벽한 자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완벽한 자발성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시려고 했던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완벽한 우연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처럼 까만 천주머니에서 속에 든 내용물을 끄집어 낼 때 동글동글한 다이아몬드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들이고 완벽한 우연성인 것입니다.
빌2: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되었지 왜 기쁨이 아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으로 믿는 것이고 '구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으로 지금 기쁘고 만족한 상태입니다.
시37: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할 때에 그 마음에 생기는 소원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인데 지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

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서는 잘못된 자발성이 나타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과 재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었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된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연성과는 다른 우연성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나오미에게 작용한 자발성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구원 얻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우연성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보석 같은 완벽한 우연성이 아닌 구원을 향하도록 하는 우연성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나오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자발성에 대해 방해와 장애를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참 구원의 단계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오미가 하나님만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 룻이 동참하게 됨으로 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소원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이삭줍기의 형태로 나타난 자발성이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자발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룻이 이방 땅에 와서 사서 고생을 하는 딱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자발성의 그 순간을 통해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갑니다. 이 완벽한 자발성에 이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우연성이 작용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마음은 당장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임할 때까지 이루어나가야 하므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잘못된 자발성을 죽입니다.
‘잘못된 자발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이 평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일깨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졌음을 내 마음이 아직 인정하지 못했음을 일깨움으로서 생각으로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잘못된 자발성을 죽이고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우연성이 주어지고, 그 완벽한 우연성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이 완벽한 자발성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일치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자꾸 일깨울 때에, 나의 자발성과 우연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함에 이를 것이고,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이 내 삶에서 확실하게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완벽함의 단어가 내 삶의 내용을 채우는 우연성과 자발성에 연합됨으로 내 삶이 과연 선민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내 생애 전부를 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